

|                           |                 |     |
|---------------------------|-----------------|-----|
| 주일에배                      | 오전(1부) 대방동      | 7시  |
|                           | 오전(2부)          | 7시  |
|                           | 오전(3부)          | 10시 |
|                           | 오후(4부)          | 3시  |
|                           | 수요일예배 (저녁)8시30분 |     |
| 서울 교회 02)533-9191         |                 |     |
|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                 |     |



|                      |              |     |
|----------------------|--------------|-----|
| 주일에배                 | 오전(1부)       | 7시  |
|                      | 오전(2부)       | 10시 |
|                      | 오후(3부)       | 3시  |
|                      | 저녁예배         | 7시  |
|                      | 금요일예배 (저녁)8시 |     |
| 인천 교회 032)763-9191   |              |     |
|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              |     |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9년 10월 13일 (제1024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10월 1일 오후 2시, '국가와 민족의 평화를 위한 기도성회'가 대한민국 심장부인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렸다. 태극기와 '이 땅의 평화를!'이라는 문구가 쓰인 애드벌룬이 펼쳐진 하늘은 우리의 기도대로 구름으로 덮여 있었고, 평화의 비둘기가 그려진 흰 티셔츠를 입은 전국의 예수중심 성도들이 시청광장을 가득 메웠다. 우리의 영원한 후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국가와 민족의 평화를 위한 기도성회'가 선포되고, 참석자 모두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며 애국가를 불렀다. 이는 우리가 서울시청광장에 모인 이유였기도 했기에 진심을 다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애국가를 제창했다. 이어 예수중심하나되기운동 본부장 이시대 목사가 진행한 국가의 평안과 안녕을 염원하는 합심기도가 있었다. 블레셋 침공으로 속수무책이었을 때 미스바로 모여 사무엘을 주축으로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으로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했다. 곧바로 특별순서가 진행되었다. 먼저 남성중창팀 그레이스 앙상블의 '우리의 소원'이 시청광장에 울려 퍼졌고, 서울교회 홀리워십 팀의 '주를 앙모하는 자', 그리고 혼성으로 이뤄진 예수중심중창단이 '예수 믿으세요'를 성도들과 함께 불렀다. 이어 현진욱 권사의 '주기도'에 맞춰 전통무용이 아름답게 펼쳐졌고, 끝으로 인천워십팀 리조이스가 '대한이 살

았다'를 공연했다. 이 모두는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한 공연이었다. 목사님이 리허설 때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한다. 최선을 다하라.'고 가르치신 결과다. '국가와 민족의 평화를 위한 기도'의 영상 상영된 후, 예수중심교단 총회장이신 이초석 목사님의 설교가 이어졌다. 목사님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를 권면하셨는데, 본 설교에 앞서 목사님은 '이 나라에 분쟁이 있게 하고, 백성들이 피폐하게 만드는 것은 보이지 않는 마귀와 악의 영과 귀신의 장난이다. 이것을 몰아내야 한다.'고 하시며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악한 것들은 물러가라.'하고 명하셨다. 어느 누가 서울 시청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귀신을 쫓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다. "지금 대한민국의 실정을 시끄럽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변화하는 과정이요, 성장통입니다. 엄동설한을 지나야 실한 열매를 맺고, 아이들이 성장통증을 경험해야 성장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더욱 찬란히 빛날 내일을 위한 과정 중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면 현실에 만족하고 살아야 합니다. 완전한 자유민주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이 변화의 물결을 두려워 마십시오. 바람이 거셀수록 띄워진 열매는 떨어지고, 부실한 열매는 떨어지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법 앞에는 누구나 평등한 것이 법치국가의 기본조건입니다. 그러므로 권력이 법을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악육강식은 동물의 세계에나 있는 것이지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선이 악을 몰아내야 하고, 빛이 어두움을 몰아내야 합니다. 또한 이 나라는 민주국가인지라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기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싫다는 표현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로 미워하지는 맙시다. 물고 뜯지는 맙시다. 한 민족끼리 물고 뜯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자유국가라고 해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말은 주인을 찾아오고, 말한 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망한다, 공산화된다.' 이런 막말일랑 하지 맙시다. 이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공산화 되지도 않습니다. 이 나라는 분명히 열강 위에 우뚝 설 것이며, 피한 방울 흘리지 않고 평화통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뿌리세요. 진보든 보수든 이 나라를 위해 그러할진대 막말을 해서 이로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고로 통 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를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끼리도 못 품는데 북한을, 일본을, 중국과 미국을 어찌 품겠습니까? 뜨거운 물이 들어가면 얼음도 녹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

해야 이 나라에 미래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정치가 맘대로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왜냐?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시며, 이 나라를 흥하게도 망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고, 그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방법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끝까지 기도의 사명을 잊지 말고, 이 나라에 진정한 평화가 올 때까지 기도합시다." 이날의 클라이맥스는 교육부가 준비한 '여호수아 군대'였다. 대형태극기가 휘날리고 평화의 북소리가 하늘을 진동시켰다. 참석한 모든 자들이 일어나 함께 태극기를 흔들며 평화의 물결을 이루는 장관을 펼쳤고, 모두가 하나 되는 감격의 시간이었다. 마른 막대기에 썩이 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는다.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면 이 나라에 진정한 평화가 도래하는 날까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도구가 될 것을 약속드린다. 집회 후 단 철거와 주변 정리는 계속되었지만, 모두의 얼굴은 해 같이 빛나고 있었다. 모든 영광을 우리와 우리 교단을 후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린다. 기자 신묘수

jesus7857@gmail.com

구독신청 02) 533-9191



'국가와 민족의 평화를 위한 기도성회'를 마치고

대한민국 만세!



우리는 10월 1일 대한민국 심장부인 서울시청광장에서 ‘국가와 민족의 평화를 위한 기도성회’를 개최했다. 그날을 되새기니 감사와 감동이 밀려온다. 우리는 직접 목격했다. 40일 동안 기도한 대로 모든 일이 이뤄진 것을. 단을 쌓

는 날에는 맑은 날로 인도하시고, 집회 당일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직접 체험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나라의 안녕을 위해 기도한 것인들 상달되지 않았겠는가.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우리의 기대를 하나님이 저버리시겠는가. 그래서 나는 감히 선포한다. 이 대한민국은 반드시 평화가 깃들 것이고, 더욱 강성한 나라가 된다고. 열방 위에 우뚝 서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이라고.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허상이다. 과도기 일 뿐이다. 자고로 물이 끓기 시작할 때

가 제일 시끄럽고, 새벽이 오기 전이 가장 추운 법! 이 과정이 지나면 이 나라는 우리가 날마다 시인한 대로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될 것이다. 동해물이 마르고 백두산이 닳도록 건재할 것이고, 온전한 민주국가로서, 그리고 평화통일 국가로서 세계인의 존경을 받는 나라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내가 대한민국의 장래를 걱정하지 않는 이유다. 생각할수록 감사하다. 이 작은 예수중심교단을 통해 이 나라에 위기가 올 때마다, 이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심이 감사할 뿐이다. 아울러 당부하고픈 것은 지속적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통치권자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다. 나는 이 나라에 평화통일이 도래할 때까지 이 집회를 계속해나갈 것이다. 이미 응답받은 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끝으로 집회를 위해 수고해주신 모든 주의 종들과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린다.  
예수중심교단 총회장  
이초석 목사

시청 집회를 마치고



10월 1일 시청 앞 집회 때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이 가슴 깊이 새겨졌다. 나무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며 열매를 맺고 꽃피우며 수없이 지나면서도 계속 성장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6·25, IMF, 리먼 브라더스 사태 등 크고 작은 우여곡절을 수없이 겪으면서도 지금까지 계속 성장해왔다. 우

리 교단도, 우리들 가정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다. 어떤 역경이 와도 하나님 은혜로 계속 성장해갈 것이다. 나무들이 그렇듯이. 더욱이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가 바탕이 되어 세워진 나라다. 신라와 고려는 불교가 바탕, 조선은 유교가 바탕이 되어 세워진 나라들이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의 결국을 맞이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 은혜로 시작한 나라이니 우리가 하나님 편에만 끝까지 붙어있으면 영원한 성장과 축복을 누릴 것이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요15:4).

지극히 작은 우리 교단이 국가가 어려울 때마다 앞장서서 기도의 봉화를 들게 하신 주님께 무한 감사드린다. 우리나라가 세계 선진국들의 견제나 눈총을 받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가 성장했기 때문이다. 전에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했고 무시할 정도의 나라였지만, 지금은 그 나라들의 위협이 되고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된 것이다. 주님은 이 나라가 여기에서 멈추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더 높이, 더 멀리 축복하여 세계에서 가장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높이는 나라로 쓰시기를 원하신다. 언제나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전화위복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계획을 갖고 계시고 행하

시는 일이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빌2:13).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렘33:2~3). 이번 집회에 물심양면으로 힘쓰고 기도하고 참석하여 함께 기도하신 모든 주의 종들과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일의 시종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예수중심하나되기운동 본부장  
이시대 목사

시청집회를 준비하며



먼저 금번 성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이번 성회를 준비하면서 총회장 목사님께서 기획팀에게 하시는 말씀이 “집회는 행사가 아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마라. 또한 대충은 없다. 이번 성회가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준비과정부터 직접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시는 그 모습을 보며 항상 느끼지만 왜 하나님께서 총회장 목사님을 크게 사용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한다.

이번 성회가 결정된 후 발표된 40일 작성 기도회, 총회장 목사님을 비롯하여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 곳곳에서 뜻을 같이 하는 주의 종들부터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작성 기도회 동참하는 모습을 보며 성회의 성공을 확신하게 되었다. 또한 성회의 일부를 담당하는 특별공연 출연진들의 피땀 흘리며 연습하는 모습, 성회에 한 명이라도 더 참석시키려는 성도들의 전도하는 모습, 시설 및 안내 등을 담당하는 장로, 집사님들의 사전 준비하는 모습, 봉사자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손길, 그 외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많은 분들의 모습 등등 모두가 자신의 일로 여기며 함께 헌신하는 모습은 나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했고 성회의 성공을 예견했다. 성회 전날 새벽 4시, 엔진 굉음을 내며 지게차의 분주한 작업을 시작으로 무대의 골조가 세워지고, LED와 메인스피커

가 설치되고, 엄청난 숫자의 의자가 놓아지면서 밤 11시가 되니 성회를 맞이할 준비가 어느 정도 완성되어가고 있었다. 당일 아침 성회를 알리는 대형 애드벌룬을 띄우고 최종 리허설을 하며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성공을 기원하며 준비를 마쳤다. 그동안 성회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며 얼마나 많은 긴장을 했던가! 드디어 시작시간이 되자 우리가 우려했던 날씨는 기도한 대로였다.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바람까지 적당히 불어 시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물려드는 수많은 인파와 함께 조화를 이루는 그 아름다운 광경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왔다. 총회장 목사님의 국가를 사랑하는 믿음의 메시지와 청소년들이 단합하여 구성

된 여호수아 군대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며 애국가의 한 소절을 반복하여 부르는데, 듣는 나는 참을 수 없는 눈물과 감동이 북받쳐 오르는 것이었다. 뜨겁게 불타오르는 이러한 성회를 과연 어디서 볼 수 있겠는가? 어느 누가 이렇게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는가?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수중심교단과 총회장 목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이 없다면 절대 할 수 없는 성회임에 나는 당당한 자부심을 갖는다. 그동안 기도해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움 주신 많은 분들, 그리고 특별히 설치부터 철거에 이르기까지 운물을 사리지 않고 봉사하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중심하나되기운동 운영위원장  
이석실 목사





국가와 민족의  
평화를 위한 기도성회  
2019. 10. 1 오후 2시  
서울시청광장





# 영적 카운터펀치를 날리다!



아! 온몸을 전율케 한 이번 기도성회의 감격을 어떻게 단 몇 줄의 글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회를 보기 위해 단상에 서는 순간부터 마지막 젊은이들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순간까지, 저는 정말 제 자신에 예수 중심교단의 일원이라는 사실이 이토록 감사하고 자랑스러울 수 없었습니다. 근간 우리 한반도는 더할 수 없는 긴장감이 날로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렇습

니다. 위기가 분명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로 대표되는 대륙세력과 미국과 일본이라는 해양세력 사이에서 군사적, 경제적 압박의 수위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어쩔고요. 게다가 일본의 경제 보복은 가뜩이나 버거운 우리 상황을 더욱 옥죄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나라를 극도로 분열시키고 있는 진영논리조차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외부의 노출된 적이 문제가 아니라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이 더 큰 상처와 앙금으로 남기 때문이지요. 지난 40일 작정기도를 통해 우리는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길 간절히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 국군의 날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수도 한복판에서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

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협하는 악한 마귀와 악의 영들, 그리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라!' 우리 모두가 눈에 보이는 문제들에 사로잡혀 생각과 시선이 고착되어 있었을 때, 총회장 목사님만은 담대히 '이것이 모두 악한 마귀의 체계이며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영적 모략'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제야 우리 모두의 시야가 뚜렷해졌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엡6:12)'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총회장 목사님과 우리 교단 전 성도님들의 열심과 부르짖음으로 인해 이 나라에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내쫓기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담대한 선포

가 영적 카운터펀치가 되어 마귀의 계획에 비수를 쏘는 확실한 승리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누군가 흘린 눈물로 이 나라에 독립된 자유 대한민국이 자리 잡혔고, 누군가 흘린 땀방울로 이 나라에 산업화가 이루어졌으며, 누군가 흘린 피로써 이 나라에 민주화가 정착되었던 것처럼, 총회장님께서 피를 토하듯 외치시는 그 부르짖음을 통해, 그리고 그에 반응하여 함께 영적 전선에서서 기도의 기치를 높이 세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반드시 이 땅에 평화통일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총회장 목사님, 그리고 예수중심 교단 가족 여러분, 작렬하는 태양 별 아래에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사회자 신현명 목사

## 하나님의 계획 하에 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국가와 민족의 평화를 위한 기도성회'의 통역 사회를 맡은 서울대학부 장수정입니다. 먼저 이번 기도성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첫 시정집회가 있었을 때, 저는 뉴질랜드에서 홀로 유학 중이었습니다. 모태 신앙이었지만 그 당시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물티슈를 나눠주며 열심히 시정집회를 준비하는 가족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가 약 4년 전 한국에 와서 예수님을 다

시 만났고, 우연히 북한 인권동아리에 들어가 많은 탈북민 친구들을 사귀며 통일과 국제정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국제학과 개발학을 전공한 것도, 통일 관련 활동을 하게 된 것도 흘러간 일상들 속에 제가 자연스레 선택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유학을 간 것부터 제가 저의 선택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번 기도성회 사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해서 그 과정이 순탄했던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실수하지 않아야 한다는 부담감과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저를 작아지게 했습니다. 게다가 마지막 리허설 전에는 영어 대본 전체가 다 바뀌어 2주 동안 익혔던 대본을 다 잊고 새로운 대본을 숙지해야 했습니다. 결국 마지막 리허설 때 가장 많은 실수를 하고 리

허설을 마쳤습니다. 남은 하루라는 시간 동안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사실 예전대로 하면 안 되냐고 말씀드릴까도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전적인 순종에서 나온다'는 믿음으로 순종했고,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지는 마음으로 집회 전날 새벽까지 기도하며 연습했습니다. 마침내 기도성회 당일, 저는 가장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섰으며 단순히 숙지한 대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믿음으로 담대히 말했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문득 이런 저의 모습이 우리 교단이 걸어가는 길과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혼자 6년 동안 타지에서 영어를 배우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이 세월이 너무나 귀하게 쓰임 받은 것처럼, 우리 교

단이 심은 기도와 헌신은 평화통일이 이루어지는 그 날, 찬란하게 빛을 발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비록 그 가운데 어려운 고난이 있을지라도 함께 이겨내며 기적을 맞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20대 젊은이로서 총회장 목사님과 모든 성도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국을 둘러싼 국제정세는 기도 외에 풀릴 방법이 없습니다. 목사님은 저희에게 항상 '이 집회는 너희를 위해 하는 거야.'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안에서 아직 하고 싶은 것이, 이루고 싶은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번 집회를 시발점으로 대한민국을 둘러싼 모든 국가가 대한민국을 도울 것이고, 이것이 대한민국이 더 발전하는 방아쇠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예수중심교단이 서 있기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사회자 장수정 자매

